

학교와 사회 각각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매체가 되기를



조규태
한성프레스센터장

1976년 12월 15일 『漢城女大學報』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한성대신문』이 약 39년의 역사를 거쳐 지령 5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 달에 1번 혹은 2주에 1번의 방식으로 발간하였다 하니, 평균적으로 일년에 13번을 끊임없이 발간해온 셈입니다. 약 4,000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신문을 발간하느라 애쓴 기자들의 노고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한성대신문사가 '한성문화상' 또는 '한성문화상' 공모사업, '사진공모전',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 등의 사업을 벌인 점도 경이롭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문학·예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성대신문사가 기여한 바가 참으로 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이 분명히 자랑스럽고 기념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한성대신문』은 여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학생의 향상과 학교의 발전, 이웃에 대한 배려와 바른 사

회의 건설 등을 위해 『한성대신문』이 걸은 길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한 마디 덧붙인다면, 『한성대신문』이 학교와 사회 각각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매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학교는 구조조정으로 혼돈의 와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옳은 것인지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학교의 구성원 간에는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회에도 진보와 보수 의견의 대립으로 설전이 난무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혼돈스럽고 캄캄해져 가는 시기에, 『한성대신문』이 '기름'보다 '냉각수'의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가족과 학교와 사회의 구성원이 원용(圓融)하고, 분열된 민족이 통합하고, 분단된 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데 『한성대신문』이 가교의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한성대신문』의 새롭고 힘찬 도전을 기대합니다.

위기 속 500호라는 꽃을 피운 한성대신문에게



김근영
한성대신문사 37기 사회부 부장기자
행정학과 3

선후배들의 축복을 받으며 한성대신문사에서 2년의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것이 작년 8월의 일입니다. 모든 일에 어수룩하지만 하던 신입생 시절 한성대신문사에 들어가 어엿한 3학년이 되어 신문사를 떠난 것입니다. 함께 퇴임하던 동기들과 "500호를 못 만들고 나간다"며 아쉬워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성대신문사가 500호를 맞았습니다. 미처 저와 동기들이 만들지 못한 500호를 어드레스 후배들이 멋진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든든합니다.

'학보사의 위기' 한성대신문사 500호 축사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보사 기자가 되기 전에도 들었던 말이고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때는 귀에 이골이 날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의 학보사들이 위기를 맞이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학내문제, 더 나아가 대학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고 대

학신문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학교 측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니 인력난이 생기고 신문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현재 대부분의 학보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학보사들은 타계책을 찾아가고 모험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성대신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의 질을 높여려는 노력은 물론 SNS를 통해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신문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과 학우들의 관심 덕분에 한성대신문이 학보사의 위기 속에서도 500호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핀 연꽃처럼 귀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한성대신문이 600호, 700호, 1000호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흙탕물 속 연꽃으로 남는 것이 아닌, 흙탕물을 정화하며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다려지고, 읽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한성대신문이 되기를



박소영
독자위원
경영학부 4

쌔쌔한 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봄의 햇살이 느껴지는 가운데 한성대신문이 어느덧 창간 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500호가 발행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성대신문사에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성대학교의 중심적인 언론기관으로서 한성대 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여론형성과 사실보도에 힘쓰는 한성대신문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한성대신문사로부터 이번 500호 기념 특별호를 위해 축사를 부탁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성대학교에 입학한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한성대신문을 매 호마다 챙겨보게 된 저로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한성대 학생들을 대신해서 한성대신문에 500호 축하인사를 잘 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성대신문에 대한 한성대 학생들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많이 부족한 글 실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더하고자 이렇게 축사를 보냅니다.

한성대신문을 꾸준히 구독하게 된 것은 492호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한성대가 한성대 학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성대가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수업만 듣고 모든 학교생활에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성대신문을 꾸준히 접하고 나서부터는 한성대의 주인인 한성대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적극적인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성대신문이 매 호마다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최근 이슈들에 대한 한성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은 저에게 정말 유익했습니다. 한성대신문이 다루는 정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고 있거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한 이슈에 대하여 나오는 다른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SNS로 하루에도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 종이신문으로 정보를 얻는 재미를 잃어버렸던 저에게 한성대신문은 다시 그 재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종이신문에 비해 그 정보에 대한 깊은 분석과 다양한까지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대신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대학언론으로서 의지와 열정을 잃지 않고 한성대 학생들이 신문을 읽는 재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지금처럼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영터리 기사 사시이비 기자 혹세무민 신문을 찬(讚)함



김동환
학생지원처장

'축하(祝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령(紙證) 500호를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를 '축하'해야 한다면 더욱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하'라는 말은 건네지 않겠습니다.

자고로 신문이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로 인해 '이(利)'를 얻는 이들은 대개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해(害)'를 입게 되었거나 입게 될 사람들은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대개 이렇습니다. "이 기사는 순 영터리 기사야." "이 기사는 사시이비(似是而非)야." "이렇게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신문은 없어져야 해." "이 신문사는 사회악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분풀이를 합니다. 간혹 억울한 사연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사실과 의견을, 옳고 그름을, 사(私)와 사(邪)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쟁과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령을 하나하나 늘

려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에는 너무 인색하고 질책에는 너무 능한 사람들이 기사들을 살살이 훑게 될 것이기에,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신문을 낸다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난관들을 헤치고 쌓아 올린 500호의 무게와 견줄 때 '축하'라는 말은 너무 가벼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여 저는 '존경'이라는 말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활약 중인 역대 한성대신문사 기자 여러분, 현재의 기자 여러분, 역대 주간 교수님들 두루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한성대학교는 서울의 주산 북악산의 원편에 위치한 낙산 거울에 있습니다. 좌경통의 기운을 지닌 명당입니다. 이곳에서 성장해 온 한성대신문이기에 앞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건필(健筆)을 기원합니다.

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김성길
노조위원장

5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다 문득 불가의 오안(五眼-인간에 수행의 정도에 따라 갖추는 다섯가지 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성대신문은 500호를 발간하며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우리 대학의 밝은 곳, 어두운 곳, 기쁨, 아픔, 슬픔 등, 한성대의 오랜 시간을 헤안(사물을 밝게 보

는 슬기로운 눈)을 통해 우리에게 한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한성대신문이 앞으로 1000호를 향해 나아가갈 때 해안(慧眼)을 넘어 심안(心眼)의 경지의 눈으로 한성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알리는 마음을 올리는 신문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한성대 자존감을 높이는 신문



김준호
영문학과 88학번
한성대신문사 13기 편집국장
1인1책 대표

대학 구내에는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대학 구성원들을 논할 때 늘 이웃사이더가 되곤 하죠. 88학번인 저는 89년 정기자가 되고, 처음 기사를 쓸 때 청소하는 한 아주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인터뷰에 낯설어 했지만 막상 신문이 나오니 뿌듯해 했고, 독자들도 그동안 다뤄왔던 기획과 인물과는 다르게 느껴져 평가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성대신문은 대학 내 몸담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신문입니다. 격주마다 다양한 학내정보와 사회 트렌드에 맞춰 정기적으로 대학 내 커뮤니케이션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한 호수, 두 호수 늘어나면서 이제 500호가 되었습니다. 1년에 12번 나왔으니 세월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지요.

현재 신문의 배포 형태는 모르겠지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신문을 만드는 학생기자들은 치열한 기획과 기사 작성, 신문 편집과 인쇄 후에 교내 배포를 하기 위해 신문 한 덩이를 들고, 학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원스톱 신문쟁이로서 활동했던 학생기자들은 기사와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움에도 정론지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신문제작을 해왔지요.

500호를 맞아 일선에서 신문을 펴냈던 전현직 학생기자들의 노력에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장학금 혜택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 89년에만 하더라도 50만 원 내외의 대학 등록금 가운데 20~3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나와 등록금 비중에 비해 장학금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있었는데요. 수 십 년이 지나도 비슷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내 신문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신문의 위상이 매우 축소되고,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대학신문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학신문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성대는 특성화를 지닌 지성의 공간으로 대학 발전이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한성대신문이 특성화를 갖춘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신문의 역할이 큼니다. 현재 재학생과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다던 대학 발전과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00의 배가 훨씬 넘는 수고와 노력을 한 한성대신문



금혜지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학번
한대신문 75대 편집국장
서울언론연합회 8기 부회장

한성대신문의 500번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학보사 생활을 마무리했고, 지금 휴학생의 신분으로 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과분했던 편집국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더 이상 마감과 회의에 시달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한재원 편집국장은 아직 지친 목소리로 축사를 요청하고 있더군요. 한 편집국장과는 지난해 서울권대 학원연합회에서 동기로 만나게 된 사이인데, 동기를 사이에서 유일하게 아직 현재 편집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리도 치열히 신문을 만들었는지, 왜 아직도 제 서연회 동기는 퇴임을 하지 않고 있는건지, 왜 여러 학보사의 기자들이 자신의 젊음과 대학 생활 그곳에 걸고 있는건지. 그 이유가 사명감 이든 의무감이든, 어쨌거나 한성대신문의 기자들은 신문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호 한 호의 만드는 행위들이 얼마나 피 말리고 힘겨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잘 읽지도 않는 기사를 쓰는 데도 일주일 내내 기획과 취재를 해야 하고, 또

중에 인터뷰가 거절당하더라도 하면 마감이 얼마나 남았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한성대신문 492호가 그러했다 백지로 신문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사의 일정을 소화하려다보면 성적을 내팽개쳐야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자칫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소원해지기 십상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성대신문의 기자들이 신문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당장의 성과와 보상이 아닐 것입니다. 학보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 교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대신문사의 시사인 대학기자상 특별상 수상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성대신문사의 행보를 보면 그런 믿음은 더욱 확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0호의 신문이 나오기까지 500의 배가 훨씬 넘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성대 역사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실 모든 기자분들을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5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성대 구성원들이 한성대신문에게

한성대신문이 500호를 맞이하여 한성대 구성원들(교수, 교직원, 학생)에게 한성대신문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조언, 격려, 충고를 들었습니다. 한성대신문이 보다 더 좋은 언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원들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나은 신문을 위한 교수님의 조언

한성대신문사에게 바라는 점

이정숙(한국어문) 교수
비판을 하되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면 좋겠다.

김재철(영어영문) 교수
Print text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앞으로는 많이 힘들 것 같다. 전자매체를 이용한 circulation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할 것 같다.

이병은(영어영문) 교수
구독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방향을 찾지 못하면 폐간을 각오해야 한다. 기존의 신문의 개념에서 완전 다른 개념의 언론으로 탄생하길 바란다.

김용식(경영) 교수
학생들의 일부 의견만 반영되고 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천근(행정) 교수
독자는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한다. 신문에 학생회나 학교일정 등의 학교 일정을 소개하는 것이 어떤가. 현재 학교 정보를 종합하는 장소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신문사가 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또 학생들의 생활을 많이 다루는 생활밀착형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활동 상황도 넣었으면 한다. 이것들의 초석이 잘 지켜진다면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문을 많이 읽을 것 같다.

김경재(무용) 교수
한성대신문 잘 보고 있다. 무용학과 제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수의 학생 의견이 잘 실리는 것 같다. 전에 한성대신문에서 학교식당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이를 인상 깊게 읽었다. 앞으로도 교수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다.

명광주(사각영상) 교수
보고 싶은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문에서 두 가지가 부족하네 바로 신문의 형태와 신문의 내용이다. 매력적인 신문이 되기 위해 편집스타일 등 옷을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매체시대에 신문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신문이 읽히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을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

문찬(제품디자인) 교수
신문편집을 보기 좋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예상이 가능하다면 모던하고 트렌디하게 신문 크기가 자하철 신문크기처럼 작아졌으면 좋겠다. 신문 배부함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재칼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재미있을 만한 주제로 정해서 연재를 했으면 좋겠다.

김상현(기계시스템공학) 교수
한성대신문 다 재미있게 읽었다. 특히 앞면은 학교의 상황을 알 수 있어 좋다. 하지만 뒷면은 다소 갑작스러운 느낌이다. 학교신문은 학교, 학생, 교육,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실려야 하지만 뒷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졸업생에 대한 기사가 연재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총학에 대한 기사가 많은데 학교 과소거나 과 자랑을 해당학과에 맡겨서 신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충진(교양교직) 교수
기사가 너무 적고 면수도 적고 상당 부분을 사진과 그림이 차지하고 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놓거나 눈에 띄는 맛있는 반찬을 하나 놓아라. 기획력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기사를 써야 한다.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글들이 많고 기사의 톤이 너무 짝짝하다. 특정인을 비판하는 직설적인 기사가 없다. 비판은 하나, 돌리고 돌려서 기사를 쓴다는 것이 아쉽다. 학생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꼭 집어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한성대신문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고창수(한국어문) 교수
한성대신문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른 학교 기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학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 기사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학생들이 한성대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로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에 비해 속보성이 떨어지므로 속보성이 떨어지므로 속보기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속보기사에 대한 해설기사가나 심층 기사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학신문이 가져야 하는 사명과 비전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한다.

나은미(언어교육) 교수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과 달리 신문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만한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SNS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SNS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말고 종이신문으로써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김상봉(경제) 교수
신문에 학교를 대변하는 내용이 많지만 타 대학 학보와 내용이 비슷하다. 남들과 다른 독자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발로 뛰어야 하고 한성대 신문사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채널A, TV조선이 상위층을 대변하듯이 한성대신문도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목적 없이 뛰어나니 안 된다. 일정한 철학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대변하라.

지상현(사각영상디자인) 교수
시중에 나와 있는 일간지 신문들의 뉴스와는 다른 기획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은 IT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한성대신문도 IT를 통해 독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획기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 신문 발행이 격주로 발행되는 만큼 '뉴스'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길 바란다.

계희원(정보시스템) 교수
한성대신문 500호, 고생했다. 신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하다. 워낙 신문에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서 구성원 재생산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슈가 생길 때마다 취재하며 따라가는 것이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기분이 든다. 이슈를 따라가지 말고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기시리즈를 만들어서 다뤄라. 물론 정기시리즈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지만 직접 뛰어나니면 쓴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톤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편집이나 기사의 양이 문제인 것 같다. 경험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김귀옥(교양교직) 교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맞이한 500호는 경축할 일이다. 그동안 아쉬웠던 기사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기사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기자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과거에는 학보사 기자가 되는 것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수습생들이 어렵다는 것에 놀랐다. 학생들은 언론을 지켜 자신의 대변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

한성대신문을 읽다 보면 잘못된 문법이나 인터뷰의 내용이 실렸던 적이 있다. 기자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기자로 활동하는 기간이 아깝지 않도록 많이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다. 짧은 단신이라도 학생들이나 교수들, 졸업생들에게 기사를 맡기는 것은 어떠한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학생들이 말하는 한성대신문

신문 정말 잘 읽고 있어요. 500호를 맞이하시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신문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종호(경영, 10)

한성대신문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몰라서 자주 접하지 못해서 안타까웠어요. 더 잘 보이는 곳에 신문을 두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버스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 많이 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유지연(멀티, 11)

한성대신문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홍보를 더 해주면 좋겠어요. - 정하라(영어영문, 12)

모바일로 신문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지수(정통, 13)

신문발행이 정기적이어도 2주에 한번 꼴로 발행되는 대학신문 이거나 간헐적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문의 시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용을 잘 추천 예기스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신문 발행 때문에 기자분들이 힘든 것 같지만 앞으로 신문의 내용을 더 비판적으로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여울(영어영문, 13)

지나가다 보면 신문 배포함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배포함이 학생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학내 내용을 한성대신문이 알차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 정소유(경영, 14)

학생분들이 열심히 해서 보기 좋아요. 하지만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해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이현경(무역, 14)

한성대신문이 더 알려져서 대중적인 신문이 되었으면 해요.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김미현(제품디자인, 15)

신문이 재미있지만 읽을 때 장수가 적어 아쉬워요. - 이수연(제품디자인, 15)

아무래도 신문이 언론이나 학교와 학생들의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성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해요. - 박찬영(의생활, 15)

우리는 늘 물어왔습니다.



한재원(행정 4) 편집국장

“우리는 왜 기사를 계속하고 있을까? 500호 특집호를 제작하며 모니터 불빛에 타들어 가는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인터뷰를 하며 늘 질문을 던지던 기자들은 정작 스스로에게 던지는 저 질문에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사를 꿈꿔서’, ‘의미 있는 대학생생활을 하려고’, ‘글을 잘 쓰고 싶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한성대신문 입사 지원서에 썼던 지극히 개인적인 ‘지원동기’는 명쾌한 대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에게 한성대신문은 단순히 대학 시절의 경험,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활동이 아닙니다. 한성대학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학교의 발전을 그 누구보다 먼저 축하하며 비판의 편지를 날카롭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500호를 맞이해 학교 곳곳을 돌며 많은 한성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성대신문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직설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A학점 성적 세척 변경, 8.6%의 정원 감축 등의 아이টে를 기자들은 물어왔고 학교에 물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민감하다’, ‘시기가 그렇다’라는 등의 많은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직설적인 비판을 할 기회를 놓쳐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성대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기자들은 어떤 이유로 기자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취재하기 편한 환경, 높은 보상, 좋은 처우가 정답은 아닙니다. 500호를 맞이해 저희는 답을 내렸습니다. 정말 신문다운 신문을 만드는 것, 그것이 기자들이 대학 언론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입니다.

학생들의 장래는 취업률로 환산되어 대학의 평가 지표가 되고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들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

한성대신문에게 한마디!

한성대신문은?

- 너무 적은 인원이 만든 너무 많은 인원에게 들려주는 “소리 없는 아우성!”
- 한성대학교 인제의 산실이며 보고이다.
- 학교를 대표하는 정보전달 통보이다.
- 학교에서 몇 안 되는 깨어있는 곳이다.
- 민감한 질문을 해서 학생에게 좋은 정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 학교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고마운 곳!

한성대신문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은?

- 좀 더 찾고 싶은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여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공감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 학교행사 기사도 좋지만 행사 전에 홍보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네요.

한성대신문에게

- 앞으로 많이 글 게재하러 노력할게요.
- 늘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 눈을 가지기를!
-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 우리 대학 울림자, 영원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교직원이 한성대신문에게 격려와 충고를 양분으로 더 좋은 신문을 기대하며

보다 더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서 한성대신문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은 무엇일까. 한성대 구성원들 중 한성대신문과 애증의 관계에 있을지도 모를 교직원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들어봤다.

긴 시간 동안 한성대신문사를 지켜본 전장배(총무인사) 부처장은 본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그는 “신문사와 많은 인연이 있었다”고 말문을 뻗다. “90년대는 학생들의 사회비판이 강해 강한 기사가 많이 용인되었다”며 “당시에는 학생 기자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져 기자활동이 힘들다. 지금 신문사를 보면 저 친구를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의 역할에 대해 “수감신청과 같은 학교 행정업무에 대해 찾아와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친구를 통해 행정 업무 시 학교가 일방적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자극을 받는다. 학생들과 관계되는 절차와 의견을 듣는데 기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며 기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 대학사회에 대해 지금 학생 자치구의 위치와 입지가 강하지 못하다는 그는 “학생들의 요구가 신문사를 통해 해소됐으면 한다”며 기사를 쓰고 후에 반영된 결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들이 책임져줄 것을 요구했다.

“신문도 취재 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부분도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며 “기자들

이 앞으로 1학년 때부터 시작에서 끝까지 한성대 구석구석을 보는 프로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때에 신문사와 많은 인터뷰를 한 조윤철(기획협력) 팀장은 “한성대신문이 한성대 학생들에게 사회적 현실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가치관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 한성대신문이 미래에 대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선해(기획전략) 팀원은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2015년에는 한성대신문이 학교 전체의 목소리를 골고루 이루어있어 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교 취업률에 대한 취재와 취업 행사 취재시 자주 만나게 되는 조중집(취업창업지원팀) 차장은 신문사의 역할로 ‘정문직필’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 시대 사관과 같이 과감히 팩트만 쓰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의 큰 역사인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내 소식뿐만 아니라 학사행정 외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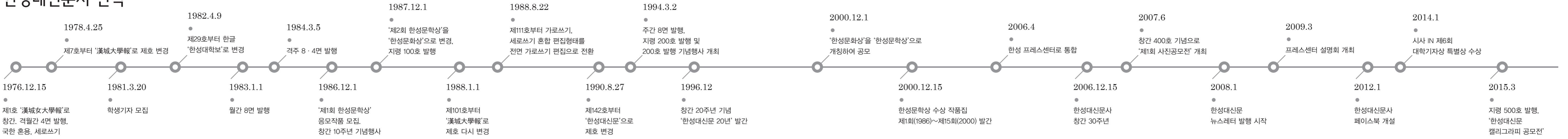
이주 사소한 문제부터 민감한 사안으로 자주 인터뷰에 응한 한영철(학생지원팀) 차장은 기사의 팩트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에 학교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간

략하게 넣고 기부자에게 신문을 보내면 동문도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은퇴한 교수님들 중 외부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떤가”라며 한성대신문의 새로운 아이টে를 제시해 주었다.

한성대의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승호(대외홍보팀) 팀장은 “신문사 기자들이 시대에 맞게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뒤처지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년 전만 해도 신문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읽지 않는다. 학생들이 신문을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야 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기자들이 독자에게 많이 다가가야 한다. 학과 행사를 활용해서 취재했으면 좋겠다. 대외홍보팀과 신문사가 서로 협조해 win-win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창간호부터 499호까지 실 새 없이 달려온 한성대신문은 드디어 5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성대신문사가 내내어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번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교직원들의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충고를 한성대신문이 성장할 수 있는 양분으로 삼을 것이다.

한성대신문사 연혁



<만평으로 한성을 말하다>

1970년대

1976.12.15 창간호
-한성여대학보' 창간
개교 4년 이래 9개 학과에 입학정원 2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대학에서 신문을 창간했다. 모두 4면으로 구성되어 국한 혼용으로 세로쓰기를 하였다. 1면과 2면은 사설, 논단을 실었으며 3면은 주로 교내 소식을 전했다. 또한, 4면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뤘다.

1980년대

1988.04.19 105호
-학원 자치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
학내자치권 쟁취투쟁은 지속적으로 인성된 장악금 문제와 무능교수 퇴진 문제 등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전면 수업거부와 시위연기 등을 결의했다. 학내 민주화와 학생권익옹호를 위해 8가지 요구사항을 학교 측에 제출하였으나, 공개답변을 두 차례 거절해 협상이 결렬됐다.

1990년대

1992.08.27 호외 1호
-한성대신문, 일일별 '사학개정문제'로 인해 제작중지
전·현직 교수수들의 권한을 대폭 늘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사학 개정으로 학생 기자들은 사설을 쓸 수 있는 자율권을 빼앗겼다. 신문 편집 자율권 확보를 원하는 기자들과 학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그 결과 약 10개월 동안 신문을 발간하지 못했다.

2007.03.20 395호
-총학생회장, 등록금 동결대신 해외연수 선택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는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그해 등록금을 7.1% 인상하기로 학교와 학생회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만 참석한 후, 부총학생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채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1999.08.27 호외 1호
-한성대신문, 일일별 '사학개정문제'로 인해 제작중지
전·현직 교수수들의 권한을 대폭 늘린 학교 측의 일방적인 사학 개정으로 학생 기자들은 사설을 쓸 수 있는 자율권을 빼앗겼다. 신문 편집 자율권 확보를 원하는 기자들과 학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그 결과 약 10개월 동안 신문을 발간하지 못했다.

2007.03.20 395호
-총학생회장, 등록금 동결대신 해외연수 선택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는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그해 등록금을 7.1% 인상하기로 학교와 학생회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만 참석한 후, 부총학생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채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2007.03.20 395호
-총학생회장, 등록금 동결대신 해외연수 선택
등록금조정위원회에서는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그해 등록금을 7.1% 인상하기로 학교와 학생회가 합의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만 참석한 후, 부총학생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채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대

2014.09.01 492호
-교육부, 정원감축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면바 정부 시절부터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를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서 지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산점만큼 정원을 감축하면 지정 유예된다. 보고는 8.6% 정원감축을 통해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보도를 한성대신문사 1면 탐 기사로 작성했지만 주간 교수와의 마찰로 인해 백지보도하게 되었다. 그 이후, 2학기 내내 이에 대한 내용을 1면 탐 기사로 다루었다.

2010년대

2014.09.01 492호
-교육부, 정원감축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해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면바 정부 시절부터 실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기를 통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서 지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가산점만큼 정원을 감축하면 지정 유예된다. 보고는 8.6% 정원감축을 통해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한 보도를 한성대신문사 1면 탐 기사로 작성했지만 주간 교수와의 마찰로 인해 백지보도하게 되었다. 그 이후, 2학기 내내 이에 대한 내용을 1면 탐 기사로 다루었다.

숫자로 보는 한성대 신문

지금까지 발행된 신문 호수

2015년 3월 16일 발행.

500호

한성대신문은 한성대학교가 1972년 한성여자대학으로 개교한 지 4년이 지난 1976년 12월 15일에 「漢城女大學報(한성여자대학보)」란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29회 한성문학상

제84호(1986년 12월 1일)에서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로 처음 한성문학상을 개최하여 시와 단편소설(희곡 포함), 평론을 공모하였고, 이듬해 학술상을 포함하며 '한성문화상'이란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2000년에 이르러 학술상과 평론부문을 제외하고 '한성문화상'으로 다시 개칭하고, 15주년을 기념하여 <한성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발간하였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연륜이 깊은 행사이다.

신문배포합수 10개

배포합 위치는 ▲담구관 1층 중앙개단 ▲미래관 그라피에 옆 ▲미래관 열람실 엘리베이터 ▲지선관 1층 엘리베이터 ▲진리관 중앙현관 자율충전대 앞 ▲창의관 1층엘리베이터 옆 ▲중문근처 우촌관 1층 휴게실 앞 ▲낙산관 1층 무용학과 앞 ▲공학관5동 주출입구 앞 ▲정문-우촌관 건디밭을 지나는 미래관 통로로 총 10개의 배지함이 설치되어 있다.

2757

2012년 1월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을 개설하였다. 한성대신문사는 계정과 페이지 두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사 계정과 친구인 학생은 총 2,757명이다. 신문사 페이스북을 통해 지면안내, 속보, 이벤트 등 학우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페이스북 친구 수

4000부 발행부수

한성대신문에는 기자들 외에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한성대 구성원 누구나 글을 실을 수 있는 '오피니언'면이 있다. 한성대신문 제400호부터 제500호까지 걸릴을 기고한 학생들의 수는 88명이다.

808

제400호부터 제500호까지 발행된 신문의 모든 면을 세어보니 808면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한성대신문은 격주간 8면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새터 특집호는 4면, 학기 말 마지막 신문은 1학기에 한성문화상, 2학기에 사진공모전을 진행하면서 12면으로 제작하고 있다.

71

사람 면에서 만난 사람 수
(2013년 9월 2일 479호부터)
제479호(2013년 9월 2일)부터 기존의 '여론'면이 '사람'면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기자들은 본교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부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유명인사까지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 기사를 사람면에 실고 있다. 지금까지 사람 면에서 만난 사람들의 수는 71명이다.

88

400호부터 실린 독자칼럼 학생 수

현직 기자 6명, 어려움 속에서도 퇴임 기자는 62명에 달해

현재 신문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은 6명이다. 37기 현재원 편 집국장과 39기 기자들이 취재부, 학술부, 사회부, 문화부 각 부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76년 창간된 아래로 수많은 기자들이 신문사를 지나쳐갔다. 그중 정식 입기를 마치고 퇴임기자회에 가입된 퇴임기자의 수는 6기부터 37기까지 총62명이다.

한성대신문이 창간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이 그러 하듯 한성대신문 역시 학교와의 마찰, 편집 자율권침해, 기자부족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에 부딪힌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자들의 자발적인 각오와 헌신적인 열정, 대학신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한성대신문은 창간 500호를 맞이할 수 있었다.

100호

1976년 12월 15일 창간호를 맞아 100호를 맞았다. 제63호(1985년 5월 20일)에서는 그 다음 2 학기부터 새 컴포스에 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희망한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을 당황했다. 격동의 1985년을 지나 드디어 지령 100호(1987년 12월 1일)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 기념시로 1면을 장식하고 서예가 김충현 선생에게 글을 받는 등 알차게 구성하여 16면을 발행했다. 그러나 100호를 맞이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학내문제와 언론단압을 향해 펜을 세우야 했기 때문이다.

제105호(1988년 4월 19일) 1면에 학내자치권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시기의 각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학내 민주화를 위해 학생들은 전면 수업거부와 시위를 연거푸 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후 1988년 10월에 입부쟁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학원비리척결과 학원자주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은 1992년까지 이어졌다.

한 걸음부터 500걸음까지

100호 단위로 특집호를 발행한 한성대신문과 당시 이슈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창간호

한성대신문의 첫 출발
한성대신문은 1972년 한성여자대학으로 개교 이래, 4년이 지나 1976년 12월 15일 '한성여자대학보'로 창간했다. 한성여자대학보의 창간을 맞이하여 발행인인 김의형 학장의 창간기념사가 실려 있다. 2면에는 '배움에의 의지'로 문헌 큐내유일의 아간여자대학'이라는 제목으로 한성대학교의 출발을 알렸다.

300호

크고 작은 학교 소식 끊임없이 보도해
조용하던 본교를 일순간에 강타했던 사건이 256호(1997년 11월 24일)에 기록되어 있다. 서정의 명예이사장과 김옥자 이사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본교가 관선이사 체제로 변경되었다.

30호 작은 학교 소식을 전하며 서 한성대신문이 제300호(2000년 11월 6일)를 122호로 발행하게 되었다. 100원짜리의 여러 동전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300원짜리 동전을 표현한 독특한 기념호보통 1면에 실렸다.

이후 제308호(2001년 4월 16일)에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금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만한 의사소통과 문제의식 공유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제351호(2004년 3월 15일)에는 유재현 전 경리과장이 학교 공금 총 29억원을 횡령해 학교 구성원의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100호

1985년의 격동을 딛고 100호를 맞았다
제63호(1985년 5월 20일)에서는 그 다음 2 학기부터 새 컴포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희망한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을 당황했다. 격동의 1985년을 지나 드디어 지령 100호(1987년 12월 1일)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 기념시로 1면을 장식하고 서예가 김충현 선생에게 글을 받는 등 알차게 구성하여 16면을 발행했다. 그러나 100호를 맞이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학내문제와 언론단압을 향해 펜을 세우야 했기 때문이다.

제105호(1988년 4월 19일) 1면에 학내자치권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시기의 각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학내 민주화를 위해 학생들은 전면 수업거부와 시위를 연거푸 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후 1988년 10월에 입부쟁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학원비리척결과 학원자주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은 1992년까지 이어졌다.

400호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자들이 빛을 발했다
제395호(2007년 3월 20일)에 실린 '총학생회장, 등록금 동결대신 해외연수 선택' 등과 같은 학생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성대신문사 기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도했다. 이후 전체 12만여명으로 구성된 제400호(2007년 6월 11일)는 기념 그래픽 디자인을 명광주(사직장상) 교수에게 청탁하여 1면을 꾸몄다. 또한 한성대신문의 기획과공을 실어 역사를 되새겨 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제422호(2014년 9월 1일)의 1면 기사가 백지보로 발행되었다. 백지보 발행 이후, 2학기 내내 한성대신문의 1면 기사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보도였다. 이후 한성대신문은 제500호(시사 IN) 대학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사 IN은 '학내 언론의 발전적 비전' 기능을 충분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제500호(시사IN) 대학기자상 특별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창간호부터 469호까지 새 세상이 달려 한성대신문은 드디어 5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호

한성대신문 창간 후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제190호(1982년 8월 17일) 신문은 제작을 마치고 배포까지 마쳤다. 그러나 편집자들에 대한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해 10월 6일에 재발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성대신문사는 편집자들과를 생취하기 위해 호외 1호(1982년 8월 27일)와 2호(1982년 9월 1일)를 발행했다. 그러나 학교와의 첨예한 대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제188호(1983년 3월 15일)를 끝으로 '한성대학보'는 발간중지 되었다. 이후 10개월여만에 어렵게 제190호(1983년 12월 7일)가 발간되었다.

10개월의 암흑 끝에 드디어 신문 발간

다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제200호(1984년 3월 2일)는 16면으로 구성되어 발행되었다. 1983년에 실시하지 못했던 제8회 한성문화상도 늦게나마 시행했으며 만별 성격도 주제만, 논단만, 여론생활만 등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제208호(1984년 9월 12일)부터 각 면의 모든 테두리선과 단주를 빼고 본문글자를 키워 편집의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이후 신문은 학교 소식을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 관해 객관성을 일컫는 기사를 실었다.

300호

크고 작은 학교 소식 끊임없이 보도해
조용하던 본교를 일순간에 강타했던 사건이 256호(1997년 11월 24일)에 기록되어 있다. 서정의 명예이사장과 김옥자 이사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본교가 관선이사 체제로 변경되었다.

30호 작은 학교 소식을 전하며 서 한성대신문이 제300호(2000년 11월 6일)를 122호로 발행하게 되었다. 100원짜리의 여러 동전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300원짜리 동전을 표현한 독특한 기념호보통 1면에 실렸다.

이후 제308호(2001년 4월 16일)에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금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250여 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만한 의사소통과 문제의식 공유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제351호(2004년 3월 15일)에는 유재현 전 경리과장이 학교 공금 총 29억원을 횡령해 학교 구성원의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이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100호

1976년 12월 15일 창간호를 맞아 100호를 맞았다. 제63호(1985년 5월 20일)에서는 그 다음 2 학기부터 새 컴포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희망한 소식을 전하고 학생들을 당황했다. 격동의 1985년을 지나 드디어 지령 100호(1987년 12월 1일)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 기념시로 1면을 장식하고 서예가 김충현 선생에게 글을 받는 등 알차게 구성하여 16면을 발행했다. 그러나 100호를 맞이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학내문제와 언론단압을 향해 펜을 세우야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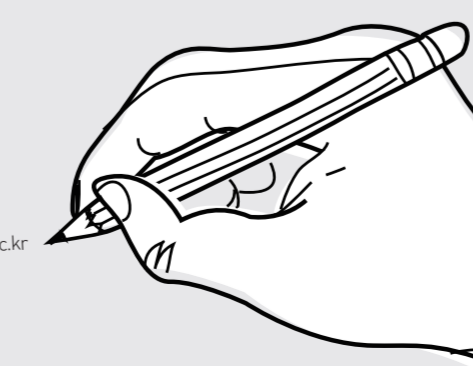
제105호(1988년 4월 19일) 1면에 학내자치권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 시기의 각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학내 민주화를 위해 학생들은 전면 수업거부와 시위를 연거푸 하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후 1988년 10월에 입부쟁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학원비리척결과 학원자주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은 1992년까지 이어졌다.

400호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자들이 빛을 발했다
제395호(2007년 3월 20일)에 실린 '총학생회장, 등록금 동결대신 해외연수 선택' 등과 같은 학생들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성대신문사 기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도했다. 이후 전체 12만여명으로 구성된 제400호(2007년 6월 11일)는 기념 그래픽 디자인을 명광주(사직장상) 교수에게 청탁하여 1면을 꾸몄다. 또한 한성대신문의 기획과공을 실어 역사를 되새겨 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제422호(2014년 9월 1일)의 1면 기사가 백지보로 발행되었다. 백지보 발행 이후, 2학기 내내 한성대신문의 1면 기사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보도였다. 이후 한성대신문은 제500호(시사 IN) 대학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시사 IN은 '학내 언론의 발전적 비전' 기능을 충분히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제500호(시사IN) 대학기자상 특별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창간호부터 469호까지 새 세상이 달려 한성대신문은 드디어 500호를 맞이하게 되었다.

임팩트 기자 @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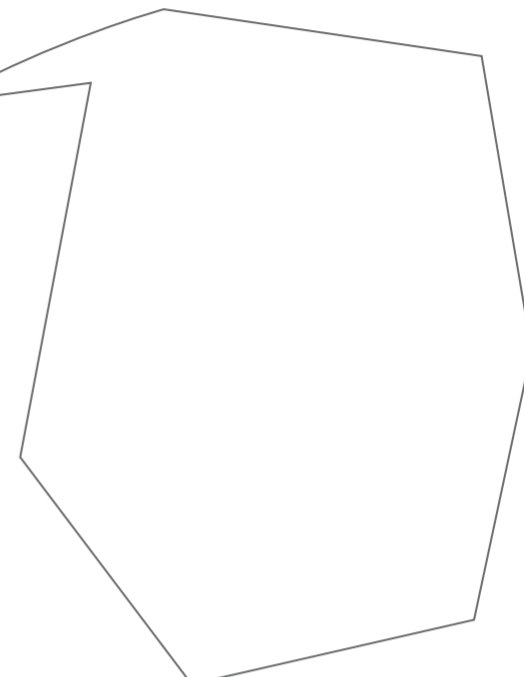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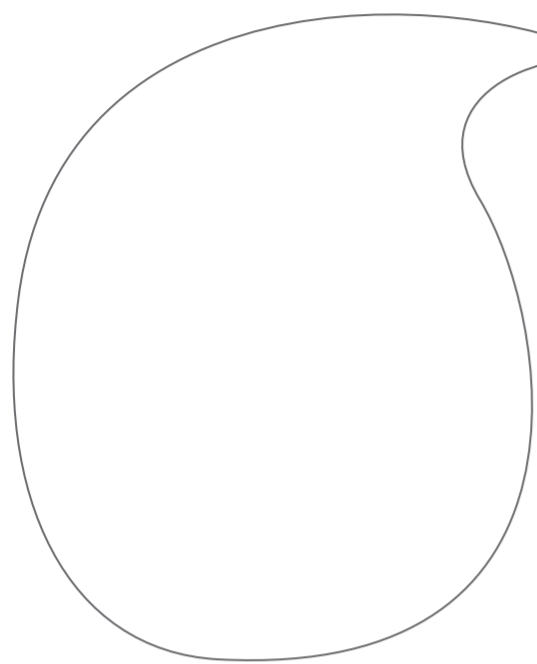


독자참여코너

한성대신문이 500호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성대신문에 실렸던 독자참여코너와 새롭게 시도해보는 독자참여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목학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사진을 보고 한성인의 센스를 보여주세요.



숨은그림찾기

한성대신문사의 현재 상황은? 신문이 나오기 전 신문사의 모든 기자들은 마감을 위해 파워레인저로 변한! 정신없는 한성대신문사 속에 숨겨져 있는 기자들의 모든 물건들을 찾아라!

- 주머니공
- 총무의 잃어버린 만원
- 기자들의 토끼친구
- 수습기자의 배찌
- 귀여운 짝들이
- 말라붙은 미역
- 길쭉길쭉 스네이크
- 살아남아라 개복치
- 안나오는 볼펜
- 먹다 남은 딸기케이크
- 방긋방긋 고양이
- 무서운 유령친구
- 낙서가득 수첩
- 밤샘 기자의 안경
- 반짝반짝 별하나

도장찍기

본교에는 한성대신문을 만날 수 있는 10개의 배포함이 있다. 학내 곳곳에 있는 배포함 중 힌트를 보고 사진 속의 배포함에 찾아가 도장을 찍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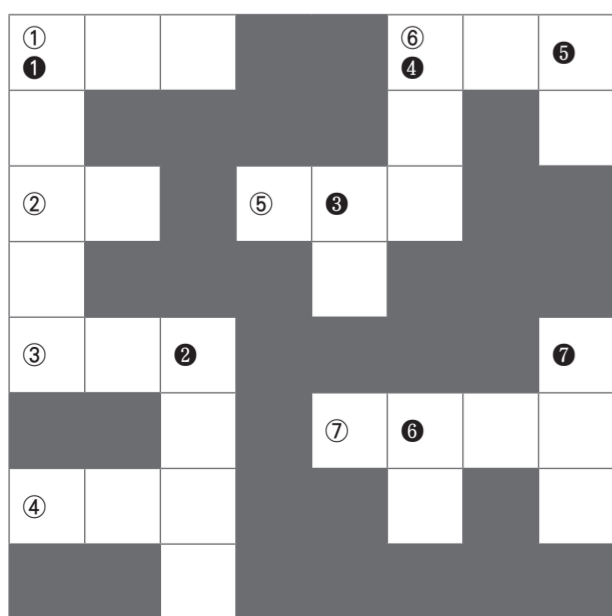


도장은 여기에

HINT!
학생들이 설 수 있는
우촌관의 그곳.

가로세로

'가로세로'는 자주 등장하던 한성대신문 독자참여코너 중 하나! 한성대신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밑에 있는 퀴즈를 잘 읽고 빈칸에 낱말을 적어주세요.



가로

- ① 한성 디자인아트 평생교육원의 졸업말
- ② 사전에 따르면 ○○은 교정지와 대조하기 위해 간단하게 찍어내는 인쇄용지라고 한다. 기자들에게 ○○은 신문이 발행되기 전 수정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종일 봐야하는 종이를 뜻한다.
- ③ 한성대 신문에는 취재부, 학술부, 사회부, ○○○가 있다. 지난 개강호에서 ○○○는 "강인한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 ④ 신입생을 일컫는 단어이다.
- ⑤ 연구동 뒤에 위치했으며 공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 ⑥ 한성대 신문사 아래층에 위치했으며 우편, 택배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 ⑦ 본교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세로

- ① ○○○○○은 학내 구성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본교 유일의 신문이다.
- ② 한성대신문 기자는 수습기자, 정기자, ○○○, 국장으로 나뉜다.
- ③ 대학의 학부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이다.
- ④ 3층에는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교무처가 위치해있는 건물이다.
- ⑤ 편집국의 책임자로서 한성대신문사 기자 중 최고서열을 갖고 있다.
- ⑥ 어떤 사업이나 연구 따위에서 세운 공적을 의미한다.
- ⑦ 간행된 신문, 책, 그림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숫자더하기+

한성대신문이 창간 500호를 맞이하여 4·5면에서 숫자를 통해 한성대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4·5면에 있는 '숫자로 보는 한성대' 코너에서 강조한 숫자 12개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정답:

모든 코너에 참여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0호 기념 '한성대신문 보틀'을 드립니다. 독자참여코너 응모는 3월 27일까지이며, 기업은행 맞은편 우체국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 연락처:
학과 : 학번:

제1회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

한성대신문사는 창간 500호를 맞아 제1회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개최했다. 한성인의 감성과 정신이 담긴 <한성대신문> 제호를 받아 한성대 신문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개최 취지였다. 캘리그래피 공모전 당선 결과가 실린 한성대 신문 8면은 대상작 제호를 넣어 1면처럼 꾸었다. 또한 이번 대상작으로 한성대신문 창간 500호 기념 보틀을 제작했다.

대상

한성대신문



전진희(한국어문 1)

신입생이라 학교 홈페이지를 매일 두어 주에 걸쳐 보고 있었습니. 그러다 우연히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대생인 언니가 하는 작업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캘리그래피를 취미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한성대 신문 캘리그래피 작품에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열정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한성대 신문의 강한 추진력을 표현했습니다. 한성대 신문의 창간 500호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신문을 다독혔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수상

한성대신문



박은지(영어영문 3)

제가 이번 공모전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한성대신문이라면 산성인의 정신이 깃들여있고 한성대를 대표할 만한 느낌이 나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느낌보다는 한성대신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또 한성대의 이념과 비전에 맞게 적극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신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유롭고 역동적인 느낌을 살려서 표현해보았습니다. 아직 캘리그래피 초보라서 배워가는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모하게 되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캘리그래피를 알려주시고 공모전 준비에 도움을 주신 지원 언니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우수상

한성대신문



곽유범(시각영상 2)

안녕하세요. 우선 대외적으로는 과거 캘리그래피로 활동하고 있는 곽유범입니다. 한성대신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성대신문사의 공모전에서 제가 애착을 가지고 만든 작품을 인정 받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하여 추후에 한성대 신문사가 제게 최우수상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평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공모전 작품심사를 마치고...

한성대신문 지령 500호 기념 '한성대신문' 캘리그래피 공모전 응모 작품은 총 44점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그리고佳作 5점 등 총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명광주(시각영상) 교수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좋다. 박은지(영어영문 3) 학생의 작품은 균형이 잡힌 아름답고 유려한 글씨체가 특히 압권이다. 그리고 곽유범(시각영상 2) 학생의 작품도 다이내믹함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젊은 감각이어서 좋다.

전진희(한국어문 1) 학생의 대상 수상작은 한마디로 틀에 박히지 않은 청춘 감각의 신선함이다.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음처럼 여러 가지 감정과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가벼운듯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유연함이며, 민첩한 시대 적응력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기존의 손 글씨 대부분이 속도감, 힘, 유창함 등의 쾌감을 표현하는 것에 치우쳤다고 한다면, 이 작품은 그런 것에 대한 반기다. 그래서 더욱 멋지다. 대상 수상작품이 주는 이미지는 앞으로 캘리그래피가 나름의 생명감을 갖고 존재하기 위해서 찾아야할 새로운 지평일 수도 있다. 한나라 시대(漢代)가 기원인 체계적인 서예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도 전통과 역사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불필요한 무게감을 떨쳐내고 다이내믹한 변화를 거듭하는 생동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 수상작품은 이러한 대학의 새로운 위상과도 잘 어울리고 실제로 신문 제호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멋진 빛을 발할 여지가 크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작품 역시 특별히

가작으로 선정된 유수지(역사문화 4), 정예서(시각영상 4), 김상희(시각영상 3), 강병관(제품디자인 3), 노진실(한국어문 4) 학생의 작품들은 각각의 작품마다 독자적인 스타일과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수상권에 들지 못한 응모작품들 중에도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느낌이 대학신문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거나, 글자 간 통일감이 부족하거나 아름다움이 덜했던 까닭에 수상작으로 평가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번 공모전에 응모했던 많은 이들이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디자인은 결코 디자이너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참여하며 배우는 것이야말로 남다른 상상력을 갖고 당당한 사회에 나아가야 할 우리 한성의 젊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공연습 과정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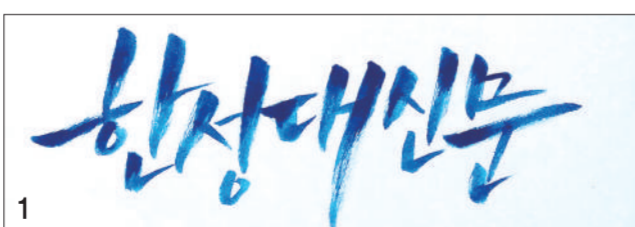
끝으로, 이번 한성대신문 제1회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대학신문의 이미지를 확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성인의 감성을 채워줄 한성대신문사



가작

1. 유수지(역사문화 4)
2. 정예서(시각영상 4)
3. 김상희(시각영상 3)
4. 강병관(제품디자인 3)
5. 노진실(한국어문 4)



한성대신문

